大學圖書館에 있어서 參考奉仕의 將來

姜 俊 浩 譯
圖協 行政分科委員

譯者註: 이 글은 廣島大學附屬圖書館의 石橋民生氏가 「現代の圖書館」 1980年 3月號에 "大學圖書館におけるレファレンス・サービスの 將來"이라고 題目하여 揭載한 것을 飜譯한 것이다.

參考業務란 英語로 Reference Work 또는 Reference Service에 대한 譯語(엄격한 意味로서는 差異가 있음)로서 圖書館의 專門的인 活動 가운데에서 重要한 核心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의 起源은 S.R. Ranganathan (Reference Service, 1940)의 圖書館의 5大原則에서 圖書館의 參考業務가 出發되었다. 여기서 發出한 參考業務가 現實的으로 많은 制約과 限定된 圖書館 資源 속에서 利用者에 대한 效果的인 活動의 方法·評價 등 많은 問題가 存在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時點, 새로운 發想, 새로운 手法에 의한 問題의 解明을 위한 硏究 開發이 必要하다고 할 수 있으며, 參考業務에 관한 問題 解明은 今後의 圖書館學의 重要한 論題가 되리라는 것은 疑心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此際에 參考司書가 어떻게 對處해 나아기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대해 많은 暗示를 얻을 수 있는 資料가 되리라 믿어 紹介하는 바이다.

머 리 말

戰後 圖書館近代化의 旗手라고 하는 Reference Service(이하 R.S.라 함)의 役割이라고 불리어지고 나서, 오랜 이후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나 大學圖書館에 있어서도 Reference 活動은 相當히 發展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大學圖書館에 있어서는 R.S.의 制度面은 여하간 그 內的 充實의 程度에 있어서는 依然하게 樂觀視되는 狀態는 아니라고 하겠다. 이 問題와 關聯된 文獻도 一定한 時期로 比較해 볼 때 最近에는 반드시 많지는 않다. 어떤 意味로는 大學圖書館의 R.S.도 하나의 장벽에 부딪쳐 있는 것 같이도 보여진다. 한편, 특히 電算機로서 文獻檢索 등의 處理를 함을 契機로 해서 새로운 變化의 징조가 엿보이기도 한다.

이 論文에는 大學圖書館의 R.S.에 관한 全般問題를 論하자면 筆者의 能力不足만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抽象的인 論述이 될 可能性이 있어 本 硏究는 司書의 日常業務 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最近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見解를 中心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第1節과 第2節에서는 Samuel Rothstein의 Reference의 槪念이 論議의 出發點이 되겠다. 즉 Reference Work (이하 R.W.이라 함)에서 區別될 수 있는 것은 R.S.와는 圖書館에 있어서의 獨立의 組織에 의해서 提供되는 Service라고 規定되었다. 第1節에는 이와 같은 規定의 業務內容에 있어서 意味 또는 檢討가 되고 있다. 第2節에서

는 이 規定을 日本의 大學圖書館의 現狀에 맞추어 보려고 한다. 第3節에는 Reference의 將來에 關聯이 되는 많은 事項 중에서 두 가지 問題, 즉 主題別部門制의 問題와 On-line 情報檢索의 問題에 대하여 檢討해 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를 考察하는 것은 종종 또 現在 나의 關心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理由는 없으며, 그 외의 重要한 問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은 너무나 當然하다고 하겠다.

Ⅰ. Reference Service의 機能 ——利用指導와 情報提供——

Samuel Rothstein의 古典的인 定義에 의하면, R.W.이라는 것은 "情報를 求하고 있는 個個의 利用者에 대해서 參考司書가 提供하는 人的 援助"이고, R.S.는 이와 같은 人的 援助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한층 "圖書館이 이와 같은 援助를 遂行하는 責任과 그 目的을 위한 特別한 組織을 明確하게 認定하는 것"을 意味한다[1]고 하였다.

이 定義는 一見 어마어마한 것 같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참으로 平凡하다. Reference의 業務內容의 側面에 있어서는 全般的으로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 것인가?

Reference의 業務內容은 보통 利用指導(援助)와 情報提供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2] 利用指導에는 慣例的으로 利用者에게 圖書館 및 圖書館資料의 利用法을 案內하고, 情報 그 自體가 아니라 情報의 利用方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또 情報提供 機能 중에는 資料의 所在에 관한 것이거나 여러가지 種類의 事實에 관한 情報로부터 特定의 主題에 대해서 Manual이나 또는 機械檢索에 의한 書誌情報의 提供까지 廣範圍하게 對象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業務內容에 있어서의 區別도 前述한 S, Rothstein의 定義, 더 한층 Reference 業業가 一般의 貸出業務 중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歷史的 事實들과를 結付시키면 利用指導와 情報提供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到達하는 것은 극히 當然하다고 하겠다. 즉 R.S.의 本源的인 形態는 利用指導에 있다. 이 Service는 一般의 貸出 Service 중에 필연적으로 隨伴하고 있는 것이며, 情報提供 Service와 貸出 Service 중에서 일어나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部分도 있다. 그것을 주로 해서 專任의 參考司書 및 特殊 Reference 蒐集이 一般貸出에서 分離하여 獨立하기까지 처음부터 그에 관해서 充分한 發展의 可能性이 주어지는 것 같은 R.S.에 固有의 領域이 있다고 할 때에 바로 이런 것을 뜻한다.

R.S.가 組織으로서 獨立하기까지는 Service의 內容이 本質的으로 利用指導의 段

1) Rothstein, Samuel.「レファレンス サービスの發達」長澤雅男 監譯, 日本圖書館協會, 1979. pp.13-14.
2)「圖書館ハンドブック 第4版」, 1977. pp.337-338.

階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은 아직 貸出을 效果的으로 하기 위한 Service이다. 貸出에서도 다른 性格을 가진 圖書館 Service에서는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組織으로서의 獨立할 때까지는 처음 展開하는 R.S.에 있어서 情報提供 機能이 그 主要한 形態로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組織의 初期에 있어서는 利用指導가 가장 重要한 機能으로 一定한 時期가 있는 것이지만, 時代에 따라 情報提供의 方法에 있어서 그 重要性이 달라져 가고 있다. 利用指導는 重要한 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 組織에 의해서 提供되는 Service라고 하는 것은 2次的인 것이며, 그 組織을 組織으로서 特徵을 주는 것 같은 Service 形態로는 없어지는 것이다.

「圖書館界」의 1972年 1月號에 關西地區의 大學圖書館職員의 座談會가 揭載되어 있는데,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Reference'가 論述되어 있다.[3] 여기에서는 Reference를 貸出의 一般的 延長으로 생각하는 方向으로 論議가 되어 있다. "R.S. 라고 하는 것은 利用者에게 資料를 提供하고, 또는 이 提供을 伸張하고자 하는 業務에 있어서 努力의 一面이거나 또는 一部"[4]라고 생각하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다. 여기서의 參加圖書館 중에는 獨立의 係와 蒐集을 더욱 大規模로 하는 大學圖書館을 포함하고 있다. 一般의 閱覽業務의 一部로써 Reference가 되어 있는 圖書館이 大部分이며, 이 점에 意見의 一致를 보는 것은 當然한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가 一般의 閱覽業務의 一部로서 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의 利用指導를 중심으로 한 一般의 貸出을 增進하기 위한 Reference에 限定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R.S.를 貸出 Service의 一部라고 생각하는 일은 특히 지나친 일이다. 專任司書가 蒐集을 하게끔 하여 情報提供 Service가 充分히 發展한다면 그것은 貸出 중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本來의 貸出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獨自의 領域을 가진 Service로서의 定着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Ⅱ. 日本의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Reference Service의 現況

日本의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R.S.의 發展이 現在 어느 정도의 狀態에 到達되어 있는가? 이 問題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調査를 比較해 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1957年 9月~10月에 北島武彦씨에 의해서 조사정리된 것이다.[5] 또 하나는 그로부터 20年 지난 후인 1977年에 長澤雅男씨 및 常盤繁씨에 의해서 調査報告

3) 「座談會 大學圖書館における レファレンス」「圖書館界」 Vol.23, No.5, 1972. pp.208-219.
4) 「上揭書」 p.208.
5) 北島武彦. 「大學圖書館の レファレンス サービス —實態調査報告—」, 「圖書館學界年報」 Vol.5, No.2, 1958. pp.94-110.

된 것이다.[6] 여기서는 比較의 對象을 前節의 趣旨에 맞추어 R.S.의 確立指標로서의 專任司書數 및 그 것이 獨立의 係로서 行해지는 것에 限定하는 것이다.

1957年의 調査(要約)

〔調査對象〕 全大學圖書館을 中央館과 分館으로 나누고, 또 그것을 國立, 公立, 私立으로 나누었고, 分館에 관해서는 그것을 人文系, 自然系로 나누었다. 이러한 母集團의 比例에 응하여 160個館(全大學圖書館의 약 3분의 1)의 Sample을 無作爲抽出法에 의해서 抽出하였고, 13個館(82%)의 回答을 받았다.

〔實施狀況〕 調査對象은 160個館이며, 그 중에서 回答을 한 圖書館은 131個館이다. R.S.를 實施하고 있다고 答한 圖書館은 100個館으로 76.3%에 달하여, 이 數字를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가까운 時日 내에 確實히 '實施하겠다'고 答한 圖書館이 16個館이고(回答館의 12.2%), '可能性이 있다'고 答한 圖書館이 84個館으로 64.1%를 차지하였다.

〔專任司書〕 專任司書가 配置되어 '있는' 圖書館이 21個館이며, '없는' 圖書館이 77個館, 無回答이 2個館이었다. 그리고 專任司書가 1名이 있는 圖書館이 14個館, 2名의 圖書館이 5個館, 4名의 圖書館이 1個館이며, 無記入이 1個館이었다. 즉 R.S.를 實施하고 있는 100個館 중에서 2名 이상의 專任司書가 있는 圖書館은 6個館에 불과하다.

〔獨立된 係로서 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現況〕 獨立된 係로서 業務를 行하고 있는 圖書館은 6個館이며, 獨立되어 있지 않는 圖書館이 87個館, 無記入이 7個館이었다. 北島氏가 "이러한 面에 대해서 大學圖書館은 未組織化의 段階에 있다"[7]고 한 말은 어느 정도 一理가 있다고 하겠다.

1977年의 調査(要約)

〔調査對象〕 5個學部 이상이 있는 國公私立大學의 中央館 55個館으로 그 內容은 國立이 27, 私立이 26, 公立이 2個館이다. 回答은 私立 2, 公立 1을 제외한 51個 大學의 回答이 있었다.[7]

〔實施狀況〕 1957年의 調査와 달리 對象이 大規模인 大學圖書館에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私立大學의 1個館을 제외하고는 R.S.를 實施하고 있었으며, 專任司書의 現況은 〈表 1〉과 같다.

---

6) 長澤雅男·常盤繁. "大學中央館における參考業務の實態", 「東京大學敎育學部紀要」第18卷 1979. pp.101-117.

7) 北島, 「前揭書」 p.100.

〈表—1〉 전임사서의 현황

職員數	1	2~3	4~5	6名이상	計
國 立	0	14	8	3	25
私 立	3	2	6	3	14

이 數字는 獨立의 係를 유지하고 있는 圖書館을 調査對象으로 하고 있다. 그로 인해 私立大學은 閱覽係에서 많은 兼任者를 統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私立大學 24個館 중 9個館이 兼任으로 되어 있다). 專任司書가 2名 이상의 圖書館은 國立, 私立을 합쳐서 36個館이다. 正確한 data는 不明하지만 이 20年間에 아마 增加한 것만은 틀림 없을 것이다. 한편 4名 이상의 圖書館은 1957年에는 1個館에 불과하였으나 1977年의 調査에서는 20個館에 달하고 있다.

〔獨立한 係로서 業務를 遂行한 側面은 어떠한가〕 國立이 27個館 중 25個館, 私立은 24個館 중 15個館에 獨立된 係가 設置되어 있어, 合計 40個館이다. 이러한 側面으로 볼 때에는 進步하였다고 할 수도 있으며, 1957年의 調査와 比較하면 더욱 分明히 알 수가 있다.[8] 특히 國立大學의 경우 1972年 이후 定員 增員政策의 效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9]

이상과 같이 調査의 對象이 되는 圖書館의 範圍나 規模가 相異해서 이 두 가지 調査의 單純한 比較로는 無意味한 側面도 있을 수 있어, 극히 妥當性 있는 結論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대략 다음과 같이 分析하여도 大過는 없을 것 같이 생각된다.

1957年의 時點에 있어서는 組織化된 R.S.를 위해서 2名 이상의 專任司書가 必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극히 限定된 大規模인 國立 및 私立의 大學圖書館에서도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基準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160個館 중에서 단 6個館에 지나지 않는다(調査對象館은 全大學圖書館의 約 3분의 1 정도이다). 이것을 單純하게 3倍로 增加해 보아도 18個館에 지나지 않는다. 北島氏는 調査의 結論으로 다음과 같이 述懷하였다.

"各 大學圖書館에서도 R.S.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각각 주어진 條件 밑에서 努力을 하고 있으나 職員, 資料, 施設 등의 面에서 制約을 받고, 綜合的으로 볼 때 發展의 여지가 없는 狀態에 있다."[10]

이것에 比較하면 1977年의 時點에서는 專任司書를 두고 獨立係로 構成되어 있다.

8) この點についての公立大學に關する記述は見られない。
9) 長澤・常盤,「前揭書」p.114の 註6を 參照.
10) 北島,「前揭書」p.102.

Reference room과 Reference collections도 가지고 있는[11] 大學圖書館이 飛躍的으로 增加하고, 또 R.S.의 規模도 擴大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 한 일이다. Samuel Rothstein 이 말하는 組織的 確立이 사실상 大規模의 大學圖書館에 관하여 限定하였고, 상당히 普遍的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엿보인다.

이와 같이 組織的이나 制度的 側面으로의 整備는 상당히 發達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R.S.의 實質的 側面 내지 內容面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調査를 擔當한 長澤·常盤 兩氏는 다음과 같이 分析하였다. 參考業務의 "普及度에 있어서는 놀라운 發展을 이룩하였으나 質的인 面에 있어서는 아직 充分한 發達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圖書館業務 全體 중에서 中心的인 機能으로서는 그리 나쁜 인상을 받지는 않는다. 質的인 面의 評價에는 擔當司書의 能力과 資質, 參考圖書의 充實度, 業務의 範圍와 運營의 組織度 등이 重要한 基準이 되지만, 이들의 어느 部分도 充分하다고 하는 確信은 얻을 수 없다.

Ⅲ. Reference Service의 擴充方案

1) 主題別 部門制

이른바 R.S.의 最大理論이나 또는 自由理論을 점점 좁혀가면은 아무래도 主題專門家에 의한 Service의 可能性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이런 경우에는 主題別 部門制의 問題와 關係되고 있다.

主題別 部門制의 問題를 만약 硏究者에 대한 Service의 한 方法으로 생각한다면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그의 妥當性은 매우 疑心스러운 것 같이 생각된다.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는 全藏書가 하나의 建物에 集中되어 있어서 一定數 이상의 藏書를 保管할 수 있는 圖書館은 이것을 主題別로 나누어 開架의 空間을 擴大하고 Reference 등의 Service를 混合해서 展開하는 것은 대단히 有效하고 適切하나 여기서 提起되는 問題點으로서는 運營上 經費가 主가 될 것이다.[12] 現在 美國에서는 주로 公共圖書館에 있어서 主題別 部門制를 發展시키고 있다.[13]

이 點에 대해서는 大學圖書館으로써, 특히 綜合大學에서 複數의 分館을 Service 對象으로 하고 있다. 각 學部에도 資料를 가까운 곳에 配置하고자 하는 欲求를 强力히 나타내는 것이 普遍的이며, 더 한층 利用者가 硏究者와 學生과의 두 層으로 構成되

11) レファレンス・コレクションを別置している館は, 國公立18 (64%), 私立15(65%), 部分的に別置しているのは, 國公立 10(36%), 私立, 7(30%)とある, 長澤・常盤, 「前揭書」 p.112.
12) 長澤・常盤, 「前揭書」 p.114.
13) Dunlop Connie R. "Organizational Patterns in academic libraries, 1896—1876,"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37, No.5, 1976. p.397.

어 있다. 이러한 複雜한 諸要因에서 生成되는 多樣한 情報要求를 單一의 中央圖書館에서 일을 쉽게 處理할 수 있는 것은 主題別 部門制라고 하는 手段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과연 可能할 것인가? 實際問題로서 美國에서는 이 制度를 이미 Edward R. Johnson씨의 報告에서 指摘한바 있다. 그는 主制別 部門制가 衰退한 原因을 몇 가지 열거하였으며[14], 그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主題專門家의 役割에 대한 疑問 : 特定分野의 學位를 가지고 있는 主題專門家는 그 分野의 Reference에 대해서는 正確하고 有能할 것이나 그 分野 이외의 分野에 대해서는 一般 參考司書와 大差가 없을 것이다. 또 學問의 方法에 통하고 있다고 해도 優秀한 一般 參考司書도 同一하게 그 業務를 處理할 수가 있다.

② 主題別 部門制의 出現은 分館圖書館의 主題와의 統合과 關係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當初 行政的으로도 아직 Service 改善의 面에서까지도 便利하게 보였다. 이 問題는 大學에 있어서 圖書館의 集中制와 分散制를 둘러싼 分館과 圖書館側과의 뿌리 깊은 對立을 가지고 있다. 結果的으로 볼 때 그 解決策으로서의 主題別 部門制와 兩者의 妥協에 불과한 것으로서 어느 側에도 滿足치는 못하다.

③ 主題別 部門制는 學部學生에 대한 專門的 Service라고 하는 일이 그 長點의 하나로 생각되지만, 그것이 外形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批判도 있다. 學部生에 대한 Service의 面에서는 主題別部門制의 變型으로서, Undergraduate library의 方向으로 注目이 움직이고 있다. Undergraduate library는 主題別 部門制에서도 目的이 明確하나 管理도 容易하다고 하며, 1960年代에 主題別 部門制가 衰退하는 時期에 우연히 交替하는 것 같은 印象으로 擡頭되어 온 것이다.

④ 그 외에도 예를 들면 費用의 問題라든가, 主題 專門家의 確保問題, 資料의 重複 및 空間의 問題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美國에서는 主題別 專門制는 이미 過去의 遺物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主題專門家의 役割에 대한 疑問은 將來 大學圖書館의 R.S.를 考慮할 때 상당히 暗示的이다. 主題의 知識은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參考司書의 資質로서는 不可缺한 것은 아니고, 2次資料의 知識을 中心으로 해서 Generalist(갖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參考司書가 되어야 하겠는가? 이것이 問題인 것 같다.

2) On-line 情報檢索의 問題

美國에는 1968年에 MEDLARS(Medical Literature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

14) Johnson, Edward R. "Subject-divisional organization in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1939—1974," Library Quarterly, Vol.47, No.1, 1977. pp.37-40.

가 出現한 이후 利用되는 Data Base의 種類는 數百에 달하고 Service의 種類 등도 100을 넘고 있다. 日本에서 活用되고 있는 Data Base의 種類數는 Service의 種類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Service를 提供하고 있는 機關이 約 10個 가까이 되며, Service의 種類는 이미 20種 이상에 달하고 있다.[15]

大學圖書館 중에서도 On-line Service가 점차 浸透되고 있다. 外國의 Data Base를 購入해서 Service System을 開發하여 學內는 물론이고 國立大學 중에서도 利用에 供하고 있어서 東京大의 TOOR-IR(Tokyo University On-lin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筑波大의 IDEAS 77, 廣島大學의 HUNDRED (Hiroshima University New Documentation Retrieval and Dissemination)가 있고, 利用이 公開되어 있는 JOIS(Jicst On-line Information System)는 이미 18個 大學으로 그 터미널이 設置되어 있다.[16] 이 數는 그럭저럭 增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Data Base를 利用하는 것은 단지 大學이나 企業의 뉴우스와 Data Base 提供者側과의 개개의 契約을 基礎로 하여 행하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全國的 또는 國際的인 規模로서의 Computer Network를 통해서의 利用計劃이 日程에 따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將來에 있어서는 Data Base와 關係 없이 OCLC(Ohio College Library Center)를 model로 하는 書誌情報의 全國計劃도 當然히 포함되어 있다. 技術的인 問題點은 이미 解決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얼마만큼 必要로 하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만큼 使用할 것인가? 問題이고, 더우기 決斷을 언제 어떻게 進行해 갈 것인가? 하는 行政問題만이라고 생각된다"[17]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情報 Network의 영향으로 大學圖書館의 重要性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問題와 Reference에 관한 영향은 어떠한가? 라는 問題에 대해서 몇 가지의 생각을 열거해 보겠다.

① On-line 情報檢索의 對象이 되는 Data Base는 MEDLARS나 JOIS에 의하여 今日까지의 業務는 自然科學이나 技術의 分野를 그 主된 對象으로 하고 있다. 이 理由는 例를 들면 經濟的인 側面이라든가 이러한 分野가 "잘 定義되어 있으며, 좁은 主題部門에 分割될 수 있다"[18]라고도 말하여지고 있다. 大學圖書館에 있어서도 自然科學系 學部에 대한 Service를 改善하기 위해서 Data Base가 强力한 手段이 되

15) 學術審議會. "今後における學術情報システムの在り方について(中間報告)資料編," 1979. 6月, pp.2-7.
16) 江里口将夫. "JICST On-line 情報檢索 System JOIS," 日本 Documention協會編 "On-line 情報サービスの現狀と展望," 1978. 所收 p.25.
17) 中山和彦. "學部情報のネットワークと大學圖書館の將來" 「大學圖書館硏究 13」 1978. pp.22-23.
18) Katz, William A.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Vol.2, Reference Service and Reference Processes," 3rd. ed. McGraw-Hill Book Co., 1978. p.155.

었다. 그 Service가 分館圖書館에서 擔當하는 경우에는 分館圖書館에 대하여 研究者側의 信賴를 增進하는 것이다. 이것은 研究者가 直接 Approach 하기 보다는 參考司書가 仲介하는 편이 現實的으로 效果的이라고 認識할 수 있다.[19] 筆者의 立場에서도 圖書館에 대한 좁은 經驗으로 이와 같은 認識을 支持한다고 생각하기[20] 때문에 參考司書에 있어서는 더 한층 좋은 契機가 될 것이다.

② 종래의 手作業에 의한 檢索에 比해서는 On-line 檢索이 强하고, 무어라해도 論理式에 의한 檢索이 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例를 들면 Biological Abstracts를 手作業 및 On-line의 두 가지 方法으로 檢索을 한 經驗이 있는 사람들은 즉시 理解가 될 것이다. 分類 Code나 Key-word나 Thesaurus 등을 組合하여 特定의 主題內容에 合致하는 檢索式을 作成하여 送信하자면 Computer와 이러한 條件을 모두 滿足하는 文獻을 많은 量의 文獻 중에서 數秒 내에 찾아내서 目錄으로 한다. 檢索式이 어느 정도 複雜하더라도 機械檢索으로서는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나 이것을 Hard-copy에 의한 手作業의 檢索作業과 比較해 보고자 한다. 물론 On-line에 있는 것을 制限도 하지만[21], 그 制限을 알고서 利用하자면 研究者에게는 그리 便利한 것은 되지 못할 것이다.

③ 參考司書의 資質問題에 있어서는 On-line 檢索은 參考司書에게 새로운 熟練과 知識을 要求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ata Base가 하는 일 중에 없는 다른 知識을 要求하고 있다. 利用者의 要求를 充分히 反映하고 檢索式을 만들기 위해서 必要로 하는 能力은 主題의 知識과 각 Data Base에 備置되어 있는 Service 등의 構造에 대한 學習일 것이다. 研究者側에게 Thesaurus 등의 利用에 通達할만큼의 努力을 아끼지 아니 하면 저들 自身이 檢索하는 것이 最善이겠으나 參考司書도 檢索의 任務가 있는 것은 十分 可能한 일이다. 이것은 醫學圖書館의 事例나, 筆者 自身의 圖書館實績 등에 充分히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22]

그 외에도 例를 들면 利用者의 反應이나 經費의 問題 등 여러가지 問題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現狀에 있어서는 사실 自然科學에 관한 限 將來 社會科學이나 人文科學의 分野에서도 On-line 檢索이 發展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Data Base를 使用하고 On-line 情報檢索이 더 한층 重要하므로 不可缺의 Reference 道具라는 것에는

19) 中山. 「前揭書」. p.24.

20) 汎用文獻檢索システムの實用化に關する研究, 1977—1978年度 文部省科學研究費による試驗研究 (2) 研究代表者 鳴海元. 1979年 3月, pp.17-26.

21) 中村幸雄 "オンライン情報サービスの考え方," 「前揭(16)」 所收, p.79.

22) "オンライン サービスを中心とした科學技術情報活動はいかにあるべきか —第14回情報科學技術研究集會パネル ディスカッション—," 「情報管理」, Vol.20, No.10, 1978. pp.762-763を參照。

전혀 疑心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

맺 는 말

大學圖書館에 관해 主題別 部門制의 問題는 主로 人文·社會科學系의 學部를 그 Service 對象으로 하고, 中央圖書館에 관해서는 硏究圖書館的 機能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自然科學界의 諸學部에는 醫學部에 典型的으로 볼 수 있는 On-line 情報檢索이라고 하는 强力한 手段에 의하며, 또 分館圖書館에 의해서 그 硏究圖書館的 機能이 遂行되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今後 더욱 一般化되어 간다고 생각된다.

主題別 部門制도 그만큼 有效하다고 생각되며, On-line 情報檢索도 人文·社會科學分野나 또 將來의 問題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分野의 諸學部에 대한 硏究圖書館的 機能은 어떻게 遂行되고 있는가? 書庫와 自習室이라는 2大機能(?)에 의해서만 性格지어진 종래의 大學圖書館에서의 脫皮는 可能할 것인가?

이 問題는 대단히 큰 問題이다. 例를 들면 Reference를 充實히 하고자 하는 方法을 圖書館 全體의 政策에서 分離하여 그것만 따로 論하려고 생각하는 것도 無意味할 것이다. 또 硏究者側으로부터의 協力도 필요로 하나 圖書館으로서의 終局의 일은 Service 能力을 全體的으로 높이고 利用者의 支持를 얻는 일 외에는 없다.

특히 重要한 일은 直接 Service를 높이는 基盤으로서는 우선 迅速하고 能率的으로 利用者 本位의 整理體制를 確立하는 일이다. 現在의 整理體制는 整理해야 할 册의 增加, 定員減員 및 그 方法이 依然한 傳統的인 技術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러한 세 가지의 理由에 의해서 점차 破綻에 直面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整理體制의 危機와 電算機 利用을 展望할 수 있는 두 가지 要因이 멀지 않아서 大學圖書館의 整理體制를 根本的으로 改革하는 것을 導入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본다. 이 길은 결코 順調롭지는 않으나 大學圖書館은 그 機能을 停止하는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R.S.의 今後의 發展은 우선 이러한 側面의 整備를 기다려서 비로소 하나의 可能性을 굳힐 수가 있지 않을 것인가.

끝으로 參考司書(全圖書館職員 포함)에 있어서는 그가 勤務하는 圖書館이라고 하는 環境 그 自體가 最善의 敎師보다 좋은 敎師이고, 어떠한 文獻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重要한 情報源이 되겠다. 이 論文을 綜合하는 過程에서 筆者가 가장 많이 배운 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圖書館에서였다.